



국화축제 사랑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지방화시대가 되어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를 하는데 해마다 가을철에 하는 자랑스러운 축제는 국화축제다. 가을철로 접어드는 10월 하순부터 전국 지방단체에서는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축제 일정이 10월 20일 ~11월 10일 전후로 15여 일간 실내외에서 전시한다. 유명한 국화축제 지방단체를 보면 함평 국화축제(10.20~11.5), 화순 국화축제(10.20~11.5), 영암 국화축제(10.28~11.12), 익산 국화축제(10.25~11.5), 마산 국화축제(10.28~11.6), 부여 국화축제(10.27~11.5) 등이 있다. 이들 국화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품종,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어 자랑스럽다.

국화축제는 국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재배 기술을 홍보해 국화 동우회가 자생적으로 생겨 가정에서도 국화를 전문적으로 가꾸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꽃을 가꾸는 심성은 아름다운 봉사 정신이며 좋은 여가선용의 취미다. 국화축제장의 수많은 국화가 오래 폼피면 하는데 대부분 개화기간이 10여 일이며 야외에 전시된 국화는 가을 비바람을 만나면 쉽게 지게 되어 가꾼 정성이 너무도 아까운 마음이 든다.

국화는 소국과 대국으로 분류하고 대국으로 임국을 가꾸며, 소국으로 현애국을 가꾸고 지도 모양 아치 등 여러 가지 모양 장식을 하며 가꾼다. 여러 품종의 다양한 색상과 모양, 가꾸는 방법에 따라 달리한 국화에서 풍기는 향기는 국화전시장에 들어선 관람객이 국화 향기에 잠기게 한다.

필자는 학교 재직 시에 꽃 가꾸기에 취미를 갖고 국화재배를 하여 아동들이 손수 가꾼 국화로 교내 국화전시회와 축제를 했는데, 아동들의 가꾸는 정성이 꽃이 피는 보람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국화꽃이 피기까지 하나의 취미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가꾸는 근면 성실에 교육적 효과가 있었고 이것이 다른 일에도 전이되어 하나의 여가선용 취미를 지속해서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한 송이 국화꽃을 보면 막연히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가꾼 이의 노력과 기다림에 감사의 정을 느낀다.

지방 자치화 시대가 되고 민선 단체장이 등장하면서 지역축제문화가 시작되었는데, 해마다 가을이 되면 지역축제로 꼽는 것이 국화축제다. 국화축제를 하는 곳의 일부 농경지가 국화밭으로 변했고 수많은 종류의 특색있는 국화가 피어 기쁨을 토하며 관람객을 맞이하는 국화축제 전시장은 장관이고 보는 이마다 감탄사를 한다. 어떻게 저렇게 길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잠깐 국화 분재 전시장에 들어가 보면 이 년~삼 년을 가꾼 석부작 목부작은 분재작품이며 작품을 가꾼 정성에 감탄사를 자아내게 한다.

국화는 심어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봄부터 가꾸고 손질하기를 수백 수천 번 하여 꽃이 피게 된 것이다. 함평 국화축제에서 선보인 대국 한 뿌리에서 나온 국화가 공 모양의 원형을 이루고 일천사백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은 가관이었으며 국화재배 기술이 선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수고한 가꾼 이의 정성에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한다. 해마다 수준이 향상된 국화축제는 신품종 개발과 전시를 하고 있으며 국화 향기는 관광객을 유인한다.

그런데 이 국화축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은 별로 없고 지출만 많이 되는 축제라면 걱정되지만, 지자체가 국화재배 기반이 조성되었고 지역 주민 국화 동우회가 결성되어 그들이 취미 삼아 재배한 작품이 전시되어 자랑하는 축제로 품을 넓히고 있어 후자를 내고 있으니 자랑스럽다.

국화축제장에 가보면 주변에 먹거리 장터가 조성되어 호객하고 있고 상설무대가 생겨 가무를 자랑하며 관람객들의 흥을 돋우고 있는데 구색을 갖추기 위한 지방 향토 문화에 맞는 다양한 전시 관람 효과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화축제는 문화 선진국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국화를 심고 가꾸는 노력의 정성이면 다른 새로운 것도 개발하여 재배할 수 있으므로 지역 소득과 직결된 지역 농산물 품평회 같은 지역 특색 있는 가을 잔치로 발전해 갔으면 한다.

칼럼

따듯한 겨울 대비하는 우리

기고

이정현 함평소방서서장



찬바람이 부는 11월, 밤낮으로 큰일교차로 거이에는 두꺼운 겉옷을 입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겨울이 다가왔다.

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레 화기취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화재 위험도 증가하게 마련이어서,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소방서에서는 겨울철을 어느 때 보다도 긴장과 불안 속에서 지나야 하는 계절이다.

매년 11월 실시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은 올해로 76회째를 맞이하였고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겨울철은 계절 특성상 난방기기 및 실내 활동이 큰 폭으로 늘어나서 화재 위험 요인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속 안전의식 함양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몇가지 안전수칙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수칙으로 전기히터·장판은 반드시 안전 인증을 받은 규격 제품을 사용해야하며 몸체와 케이블 등 외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외관에 깨진 곳이 있거나 케이블 피복이 벗겨져 전선이 드러났다면 즉시 교체를 해야한다.

둘째, 전열기구들은 소비전력이 크기 때문에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용 시 과부하로 인한 합선이 일어나 화재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멀티콘센트 사용 시 정해진 규격에 맞게 사용하고 문어발식 사용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비상구는 유사시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대피로이므로 통로나 계단실, 비상문에는 반드시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아파트안의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

넷째, 골목길을 포함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 화재는 발생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출동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소방차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큰화재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우리 스스로가 화재로부터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기본적인 화재예방 수칙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고 따듯한 겨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생활정보전화 | | 긴급전화 | |
|------------|-----------|-------------|----------|
| ▲이주여성긴급전화 | 1577-1366 | ▲기상예보 | 131 |
| ▲응급질병상담 | 1399 | ▲법률구조상담 | 132 |
| ▲미아·가출인 신고 | 182 | ▲인광알고요 상담센터 | 222-5666 |
| ▲여성 긴급전화 |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 673-9001 |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 363-7739 |
| ▲아동보호전문기관 | 1577-1391 | ▲수도고장신고 | 121 |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전기 고장신고 | 123 |
| ▲응급의료센터 | 1399 | ▲가스사고 신고 | 383-0019 |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 급증, 충력을 다해 막아야

기고

천장수 진도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인권계 경위



마약을 접한 사람들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다시금 마약을 찾고자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마약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장애나 부작용으로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삶이 피폐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마약류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뇌전반에 손상을 일으켜 치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중독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약류 사범의 30대 이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계속 증가 중이며, 청년층 중심으로 마약류 마약 거래가 더욱 지하화되고 다양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형량 강화 등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와 예방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2,613명에서 2022년 18,395명으로 45.8% 급증했고, 외국인 사범은 2018년 948명에서 2022년 2,573명으로 160.9% 폭증했다.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59.8%를 차지하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류 사범도 481명(2.6%)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며 청소년 마약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다크웹,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인터넷 마약 유통 확산과 마약 가격하락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져 젊은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만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